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3호 【루게 제25496호】 주제 105 (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5돐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5돐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이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인 12월 17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오전 9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내각총리 박봉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함께 동행하였다.

절세의 예국자이시며 민족의 어머니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차넘치는 추모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송연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뒀에 들어서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앞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쓰여져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뒀에 들어서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정은동지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혼재보존실을 돌아보았다.

참가자들은 백두산대국의 강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억년기쁨을 마련

지들과 함께 위대한 김정은동지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혼재보존실을 돌아보았다.

참가자들은 백두산대국의 강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억년기쁨을 마련

해 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한평생 선군혁명의 불은기를 높이 추켜드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제힘해보지 못한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며 조국청사에 영구 불멸할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면불휴의 초강도 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면서 역적으로 다져주신 강력한 정치군사적, 경제적으로도 있어 우리 조국은 수명, 당, 군대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일심일의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존엄떨치며 경제강국, 문명강국의 위황한 미래를 향해 일풍노도쳐나가고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발전시켜나갈 철의 의지를 시대와 역사앞에 엄숙히 선언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령영생위업 실현의 새 장을 펼쳐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불철주야의 강행군을 이어가시며 이 땅위에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의 새시대를 안아 오시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전사, 제자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피눈물의 언덕에서 다짐 그날의 맹세를 지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원경만경의 생애를 쌓고 세상에 유일무이한 일심단결의 위력, 자력자강의 힘을 총동원시켜 만만민민족사에 특기할 사면들과 경이적인 성과를 올린 것이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궤양의 념원을 자랑찬 현실로 꽃피우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내달리는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송직하게 만들어 백두의 대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위황한 설에도 따라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한성이 어린 사회주의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대국의 대업으로 천만년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따라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정치정보단

